

# 이슬람권내의 무슬림출신 기독교인들

이모세 (무슬림 선교사)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고린도전서 7:20)”

몇 년 전 ‘이슬람 상황화 선교사역’<sup>1</sup>을 비판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슬람 형제를 소개해주었다. 기존의 기독교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며 그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가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1년 뒤 그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 현지 개종자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니 그의 개종은 사실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개종한 것이 드러났다고 고백했다. 개종을 기대하는 한국선교사의 강한 요구를 읽어낸 현지 무슬림이 그것을 이용

해서 치부한 사건인데 이런 일은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심지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주자에게서도 속는 한국교회도 존재한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전파방식과 교회론은 이슬람권에서 이처럼 그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식 개종의 요구를 현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현재의 이슬람권에 존재하는 교회에 소속되면 그들의 기존 움마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된다. 그래서 다시는 가족

1. 상황화(contextualization) 선교란 혼합주의(syncretism)를 경계하기 위하여 복음전도에 있어서 문화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편집자 주).

과 친척과 사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곳의 교회들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양육시켜 주지도 않는다.<sup>2</sup>

그리고 그들은 개종 이후 기독교에 교단이 많은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게다가 기독교의 예배가 이슬람보다 경건해보이지도 않는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무슬림들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실제적인 이유는 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인 혜택 때문이다.

그래서 20여 년 전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슬림 회심자 리더들은 기존교회가 아닌 그들만의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이슬람권내에서 남아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어서 그들은 진정으로 외롭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선교학적으로 정리하는 외부인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3</sup>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이슬람권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슬람으로 부터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이사이(Isai)’<sup>4</sup>라고 부르면서 이슬람권내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의 수는 거의 수십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신

앙과 정체성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리더들은 신학교출신도 아니지만 종교재판 같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이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핍박이 심한 모든 이슬람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화 전략’이 최근 ‘내부자운동’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까지 발전되었지만 이슬람권에 이런 식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슬람권 선교지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주님의 나라의 원칙보다는, 교회건물과 조직을 더 중요시여기는 신학교출신 목회자중심의 기존의 기독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린 자들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슬람권내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이슬람이 전파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만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비성경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하려는 눈물어린 노력을 강조해야 할 때이다.<sup>5</sup> “우리가 성경적인 높은 가치와 도덕을 갖출 때에 비로소 무슬림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2. 이곳 전통교회에서 실제로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한 개 교단이 무슬림 사역을 별도로 진행시키고 있지만 세속주의 무슬림을 제외하면 열매가 별로 없는 상태이다.

3. 필 파샬(Phil Parshall)을 시작으로 이슬람권 상황화 전략을 들 수 있다. 필 파샬의 저서, *New Paths in Muslim Evangelism - Evangelical Approaches to Contextualization*, 『무슬림전도의 새로운 방향』, 중동선교회” 참조.

4. 이사이’는 예수의 아랍어 호칭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의미로 이슬람권내에서 살아가는 무슬림출신 성도들을 지칭한다.

5. 한국 토착인중에서 무슬림이 된 이들 중 73%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과 그들이 기독교를 버린 이유는 한국교회와 리더의 타락과 타종교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주의, 모호한 신학이라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무슬림선교를 위한 이슬람연구〉, 2018년 통권 3호 p. 123).“



는 그동안 한 인간의 외면만 강조한 나머지 내면이 변화지 않은 개종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이며 기독교처럼 선교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가 큰 관건이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접근방식이나 외형만 변경시키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슬람권에서의 대부분 개종의 자유가 없으나 이슬람권이 소수인 나라에서는 개종의 자유가 대부분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겸손히 이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슬람 안에 감추어놓으신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그

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제시해주신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줄 때 그들은 반응할 것이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반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참고로 지금 중국에는 이미 중국교회에서 파송한 중국선교사들이 이곳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 아래에 들어와서 이슬람 선교를 배우고 있으나 한국선교사는 아무도 없다. 몇 년 후에 중국선교사들이 한국선교사 보다 이슬람 선교에 더 전문적인 이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C